

## 정관개정, 왜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나?

Revision of Article: Why the Rough-and-Ready Procedure? .....

건축사지 05년 12월호 칼럼(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전영철)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 바, 더욱이 칼럼의 말미에 공청회에 참석했던 원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그곳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회원들에게 정관개정의 허실과 졸속성 그리고 그 비현실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정관개정의 개정(改正)이란 말은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다. 바르지 않다면 개혁(改惡)이 된다. 그것도 고치는 시기가 또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생업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바르게 고칠려면 협회를 잘 알아야 하고,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우리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군다나 적절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끝까지 초지일관으로만 밀어붙이는 법제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물며 법제위원회에서조차도 월가월부가 극심하고, 어느 법제위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회장에게 회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다.

공청회 때 그 많은 이견들과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린 법제위원회에서 모두 묵살해 버렸더니, 도대체 협회와 정관은 누구의 뜻과 마음대로 움직이며, 공청회는 또 왜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협회 회장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법제위원회에 그 책임을 넘기고 있으니 정말 딱한 노릇이다. 마치 정관개정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처럼 일방통행으로만 밀고 간다면, 도대체 건축사는 어떻게 하고, 또 건축사협회는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개혁은 구호와 선동만으로 안 된다.**

개혁(改革)이란 말, 너무나 귀에 솔깃하고 감동적이다. 발전의 에너지가 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또한 대단하다. 절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왕왕 식상하고 허탈감에 빠질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이번의 정관개정(?)이 또 개혁의 가치를 앞세우고만 있다. '너는 반대해도 나는 간다.'는 식의 정치논리 같아서 마음이 서글프다. '과거는 보수고 현재는 진보'라는 코드논리라면 더욱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을 믿고 싶다. 이 어려운 시기에 협회에 할애하는 시간이 고맙고, 회원에 봉사하려는 그 마음만은 가늠해서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도 아님을 회원들께서도 잘 알아주리라 믿는다.

필자는 다시 그들의 시간과 마음에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좀 더 숨을 고르고 정관다운 정관, 개정안다운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는 전호의 칼럼제목은 어딘지 선동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금년 2월 총회가 그 시한인가? 내년엔 회장선가가 있으면 또 어떻게 말인가? 서두르면 졸속이 되고, 졸속은 또 시행착오만을 남길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느 누구의 선동에 따라 좌초할 수가 없고, 한국의 건축 미래가 어느 일방의 구호에 의해 자멸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건축사의 지혜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고, 건축사협회의 양심은 아직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정관의 목적과 사업이 허황된 꿈이어서는 정말로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협회의 정관이 나빠서 우리 건축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정관의 목적과 사업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우리 협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이 추가하자는 방송 사업이나 통일교류 사업을 우리 회원 어느 누가 싫어하겠는가?

건축박물관, 건축체험관, 자재전시장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라도 챙기고 다듬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수지계산을 맞추지를 연구부터 해야지 정관속의 빛 좋은 개살구로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회원과 협회가 서로 무능함을 되씹고 다투는 어리석음의 계속만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관 속에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돈이 모자라서 못한 일일 뿐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거창한 사업들은 우리 자체의 능력보다는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난 호에 언급한 또 다른 개정이유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시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필자 생각에는 그 때의 후배들은 그들의 시대정신에 맞는 목적과 사업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고스란히 활자로만 남겨준 부끄러운 선배임을 미리 폭로라도 하자는 말인지 구차하기 짝이 없다.

### **회장의 직선제 선출,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회장을 회원 전체가 직접선거로 뽑자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나쁘다 할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선거제도의 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의 여건상 과연 이러한 무리수를 감행해도 좋은지 그리고 이상을 좇다가 어느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그 혼란스러움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 회원이 8천여 명이라면 앞으로 1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직접선거를 치를 예산을 해야 한다. 2년마다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와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지난 부산대회도 여러 이유와 사정 때문에 13년만에 재개되었고, 그나마 부산의 다른 행사에 끼워 맞춘 대회였다. 대회에는 수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수백의 버스과 수천의 호텔방이 확보돼야 치를 수 있는 거대한 행사다.

회장 직선제를 위해서는 전국건축사대회의 정례화와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회의 수장선출이 연기되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회원의 협회참여도이다. 협회가 먼저 회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협회 형편이나 분위기에서는 회장직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더 훌륭한 회장, 좀 더 큰 인물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설익은 감은 떼지만 하고, 아무리 바빠도 비늘 허리 꺾어 못쓰는데 왜 이렇게 허겁지겁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그야말로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T왕국에 걸맞는 인터넷 전자투표를 운운하고도 있으나 어느 단체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다. 회장 선출이 모험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안될 꿈이라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될 꿈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실히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 16개 시·도건축사회장은 당연직 이사라니?

사실 정관개정안은 여러 번 총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시·도회장의 당연직 이사 진출이었다. 물론 줄줄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또 들고 나온다. 이번에는 정관의 목적과 사업까지 전면개정이라고 할 만큼 과대포장하고는 숨은 듯 그 고개를 내밀고 있다. 꼬리가 하도 길어서 감추어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얼른 듣기에는 무척 합당한 말인 것 같이 보인다. 시·도회장이 맡고 있는 해당 시·도의 일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을텐데, 서울까지 출장 와서 본부 일까지 도맡아 하겠다니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지 모를 정도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도 걱정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보았기 때문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이사의 직책일 수 없다. 협회의 제반 대소사와 현안문제를 직접 보고 챙기는 역할이다. 서울의 이사들도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다. 지방 일까지 의욕이 너무 과도한 것도 회원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비는 지방 출장비와 거마비 기준이라 몇 배는 증가될 것도 예상로운 일은 아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름이 아니다. 본부 이사회라는 최고의결기구의 반수를 휘어잡고, 각 시·도의 행정집행권까지 모두 가진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합당한 조직이고 능률적인 시스템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삼권분립은 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장관회의에 각 시·도 지사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지금 15명의 이사로도 난상토론이나 의견대립이 왕왕지사인데, 각 시도의 이해관계까지 뒤엎힌 35인의 이사회를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는가? 지금도 1/3이 지방이사로 구성돼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40년의 협회 역사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또 하나 형평성의 큰 문제가 남는다. 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지방회장과 삼천여명의 서울회장이 똑같은 구실밖에 못한다면 수리상 맞는 말인가? 서울의 강남건축사회만 해도 천오백의 회원이고, 적은 시도보다 더 많은 회원을 가진 전국의 분소도 얼마든지 많다. 정관개정 후 너도 나도 이사배정의 동등권을 주장한다면 이미 임의단체로 전락한 우리 협회의 앞길은 더욱 가능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동안 우리 협회 안에서는 일본의 전국건축사연합회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협회의 자립기반 확충과 발전시스템 확보에도 많은 역량을 쏟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통제시스템에 밀리고, 예산 타령에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이 솔직한 고백이다. 차라리 이러한 시대변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구태의연한 자기 뭉 챙기기로는 우리의 자화상이 너무나 가엾지 않은가를 묻고 싶다.

## 상근이사 2명 도입은 사무처 축소에 역행할 뿐이다.

회원이 어려운데 협회인들 어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산편성도 그렇고 회비수입도 여의치 않다 들었다. 좋은 때면 또 몰라도 이러한 악조건 밑에서 상근이사를 2명이나 새로 영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계속 사무처를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찬반속에서도 아직까지 상근부회장 제도를 유지하는 고충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의 사무처효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과 임원의 협회 역할론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껏 우리 협회가 견지해온 사무국 능률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 역대에 가까운 인건비에 업무추진비까지 그 증액예산만도 지금의 사정으로는 만만치가 않다.

서울의 노조운동도 보고 있지 않는가? 사무처 기구와 인력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지, 정관개정에 삽입운운은 그야말로 여불성설임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회원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권리는 그 보다 더욱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총회에서는 회원제명이라는 묘한 일이 이어졌다. 회비납부의 의무를 장기간 해태했으니 그 이유야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우면 자존심과도 같은 그 정도의 회비조차 낼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연민의 정이라도 보낼 수는 없는지가 아쉽게 남는다.

경기가 좋을 때라면 불량이나 부실회원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불황과 폐업직전에서는 가슴 저미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회원이나 원로회원 그리고 또 젊은 건축사가 바로 그 불명예의 대상자이다. 그동안 협회를 위해 쏟아온 공적이나 회비납

부역에 대해서 그래도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동료회원이고, 불황을 이기고 꿈을 키우려던 젊은 후배건축사를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는 우리 협회이면 어떻까하고 다시금 생각해 본다.

물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을 두둔할 뜻은 조금도 없다. 조직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회비임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몇 명의 제명도 남의 눈에는 큰일이거늘 몇백명을 한꺼번에 내몰아쳐도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이 앞섬을 숨길 수가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건축사회의 법적 충족요건을 채워주는 일이라 선악의 구분조차 희미해진다.

정관개정안에서 회비납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그 뜻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한번 되새겨보고 '베푼만큼 얻는다'는 진언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하는 말이다. 처벌강화규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회비를 내고 싶을 정도로 협회가 회원을 위해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어야만 한다. 더불어 10여 년 전부터 회비 없는 협회를 모토로 재검토해온 수익사업과 협회시스템의 구축도 더없이 긴급한 일이다.

### **신뢰받는 집행부만이 우리 협회의 살 길이다.**

국가의 헌법만큼 우리 협회의 정관도 중요하다. 헌법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고 있으면서 정관개정은 이렇게도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재촉해야 할 일은 건축사의 정체성에서부터 건축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연구하고 다듬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정관에 담아도 조금도 늦지 않다. 우리 정관을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덧붙이는 말이다.

최고수 운운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원로 운운하며 무엇이 개혁인양 왜곡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면서 불때로 밀어 붙이려는 일방적 언행은 그야말로 우리 건축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협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과 실제, 연구와 토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산적한 협회의 현안문제부터 하나 둘씩 회원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닌 밤중에 흥두깨식이라는 속어도 있고, 제사보다 젓밥이라는 옛말도 있다. 생업을 뒤로 하고 신뢰를 거꾸로 하고서는 정관개정의 당위성도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건축사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건축사협회인지, 그 믿음만은 정녕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도 모자라는 힘이다. 위원회도 집행부도 회원의 뜻을 뒤로 하고서는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다. 자랑스러운 건축사, 당당한 건축사협회를 다시 한 번 되뇌이면서 아무쪼록 깊은 성찰과 아량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 기회를 빌어 회원 여러분에게 더욱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ㄹ